

# 제조업 체감경기 3년來 최저

대형공사 마감 건설업계 포화  
매출 급감 운영금 대출로 충당  
미국 보호무역·중국 사드보복  
잇단 악재 수출기업 고통 신음  
자금·노동력 유출 악화 부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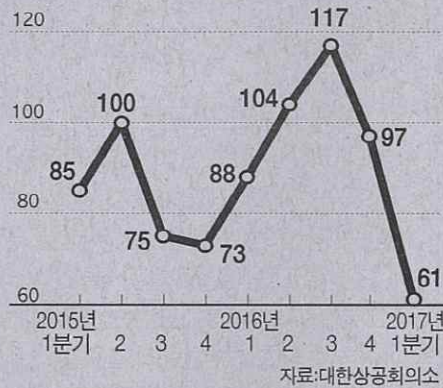
도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3년래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분기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BSI는 61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7포인트 떨어졌다.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지수다.

BSI가 100에 못 미칠수록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올림픽 특수 끝난 건설업계 ‘과잉 공급론’ 대두=대한상의에 따르면 도내 조사대상 기업 중 ‘올 1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 수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 수의 5배 이상이다. 강원도의 BSI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제조업체 중

도내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에서도 가장 전망이 어두운 곳은 건설업계다. 올림픽 SOC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반짝 특수’는 사라진 반면, 이를 노리고 들어온 업체는 2배로 늘어나 ‘포화 상태’라는 시각이다.

레미콘 제조업체 관계자는 “원주, 강릉, 평창과 발전소 건설이 있었던 삼척의 업체 수는 3년 새 배로 늘었는데, 공사가 끝나가면서 시장은 줄어 가동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매출액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운영자금이 부족하면 시중은행 대출로 충당하는 곳도 많다”고 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집계한 도내 시중은행 대출금 추이를 보면 2년 새 도소매업체 대출액은 1,259억원 늘어난 데 비해 제조업체는 3,267억원이 늘었다.

■내수 위축에 수출 여건 악화=도내 제조업체들의 1, 2위 수출대상국인 중국, 미국의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원인이다. 의약품, 화장품, 의류기기 품목의 주력시장이지만 중국의 보복무역,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로 타격을 입고 있다.

A바이오 업체는 중국 현지인들을 초청한 프로모션을 3월 중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취소됐다. B화장품 업체의 경우 중국 현지인의 취향에 맞춘 용기, 포장지를 개발하느라 수천만원을 들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막히면서 판매가 중단돼 손해를 떠안게 됐다.

기계공구 제조업체 관계자는 “25년의 업계 경험을 보면 대선이 있는 해는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외환위기는 금리 인상으로 폭우와 같았다면 지금의 경기불황은 돈이 돌지 않아 가뭄과 같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인 연구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기업경기전망지수가 전년 대비 18포인트 떨어져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68로 집계됐다”며 “강원도는 지역자금 및 노동력 유출로 제조업체들이 더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 작년 1~11월 국내건설 수주액 142.7조

## 전년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

2016년 1~11월 수주 누계액이 142조 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41조 7000억원)보다 0.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국내건설 수주동향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건축은 2015년 상승 기조가 2016년에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 2016년 1~11월 수주 누계액은 32조 4021억원으로 2015년(38조 6565억원)보다 16.2% 줄었다. 건축은 110조 2727억원으로 2015년(103조 614억원)보다 7%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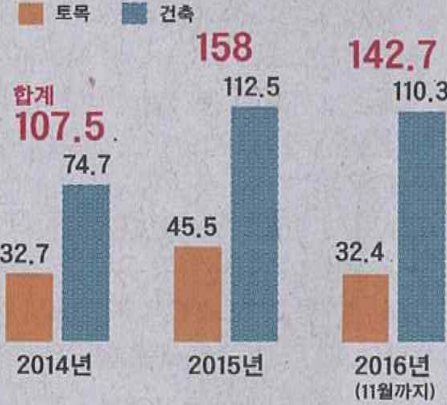
한편, 2016년 11월 수주실적도 발표했다. 공공부문은 공공주택 등 건축공종 발주 확대로 증가했다. 반면, 민간부문은 토목 공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11월 수주실적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 7522억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보다 14.8% 감소했다.

공종별로 토목은 철도궤도, 댐 공종 등을 중심으로 38.8% 줄었다. 주요공사는 △울산 신항 남항 방포호안 신축공사 △화성동탄2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다.

건축은 공공주택 및 군부대 시설 등 공종에서 39.9% 증가했다. 주요공사는 △과천시식정보타운 패키지형 임대주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이다.

최근 3년간 공종별 누계실적 (단위:조원)



민간부문 수주액은 9조 6862억원으로 11% 감소했다.

공종별로 토목은 민자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을 중심으로 59.1% 감소했다. 주요 공사는 △평택 전자 P-PJT 대기방지 △S-OIL OIP(오일탱크 유류저장시설) 증설 등이다.

건축은 주상복합시설 및 업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3.9% 감소했다. 주요공사는 △인천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의정부 송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에서 통계→월간건설경제동향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건설협회에서 매월 조사·발표하는 국내건설공사 수주는 통계청 건설경기동향 조사와 협회 자체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한 자료다.

한상준기자 newspia@